

보도시점

배포즉시

배포

2026. 04. 13.(월)

원전 수출체계 개편방안으로 한전/한수원의 내달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

<보도내용>

- 이데일리는 「쪼개진 K원전 수출 창구 하나로... 내달 'SPC 설립' 유력」 제하 기사에서,
 - 원전 수출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이 지난달에 완료되었고, 한국전력공사(한전)와 한국수력원자력(한수원)으로 이원화된 K원전 수출체계에 대해 두 회사가 특수목적법인(SPC)를 설립해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하는 개편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정부는 원전 수출체계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중이며, 개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 - 상기 기사와 같이 한전/한수원이 내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이상은 (044-203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양재원 (044-203-5335)